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 고찰

이창훈(제주동자석연구소)

차례

序

I. 동자석의 기원

- 1.1. 분묘 석인상
- 1.2. 동자석의 출현
- 1.3. 제주 석인상의 출현

II. 제주동자석의 전개과정

- 2.1. 제주 석인상의 특징
- 2.2. 제주 석인상의 전개 과정

III. 제주동자석의 조각 양식과 지물(持物)

- 3.1. 조각 양식
- 3.2. 크기와 설치 위치 및 방향
- 3.3. 지물

IV. 제주동자석의 분류

- 4.1. 암질별 분류
- 4.2. 형태별 분류
- 4.3. 머리 표현에 의한 분류

V. 제주동자석의 분포와 반출현황

- 5.1. 제주동자석의 분포 현황
- 5.2. 제주동자석의 수난
- 5.3. 제주동자석의 도외 반출 현황
- 5.4. 제주도내 분묘를 떠난 동자석

VI. 제주동자석의 가치

참고문헌

서(序)

최근 들어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무덤의 석상으로 치부되어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무(全無)했었지만, 최근에는 서민적이며 강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조각품으로서 제주의 민중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동자석(濟州童子石)은 투박하고 서민적인 간결한 표현방식으로, 제주 고유의 정서를 담아내는 독특한 기념물로서 제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동자석에 대한 실체 규명이나 현존하는 석상들의 상태나 가치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필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일부의 잘못된 추측이나 주장 등이 여과 없이 여러 논문에 그대로 인용되어 오류가 답습되는가 하면, 상업적 이득에 눈이 멀어 분묘의 석상들이 무분별한 도난과 도외 반출로 인해 소중한 제주의 유산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방치되다시피 놓여있는 제주동자석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제주동자석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은 우리가 서둘러 시행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여 간의 필드 조사와 반출된 석상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주동자석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석상의 전개과정, 형태와 분류, 도외 반출현황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동자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여러 가지 연구와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많이 도출되어 제주동자석이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I. 동자석의 기원

1. 1. 분묘 석인상(墳墓 石人像)

우리나라의 분묘 석인상(石人像)은 중국 대륙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다. 무덤의 주위에 문·무인석(文·武人石)이나 돌짐승 [石馬, 石虎, 石羊 등], 12지신상(十二支神像) 등을 세우는 풍습은 중국의 전한시대 [前漢時代 기원전 206년 ~ 서기 24년] 에 비롯되었고,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왕릉 중에 사적 제28호인 성덕왕릉 [聖德王 재위 702년 ~ 737년] 의 문인석과 돌사자상, 12지신상 등이 가장 오래된 분묘 석물로 전하고 있다. 그 이전의 분묘 석물에서는 십이지신상이 곱돌이라는 명칭으로 분묘 내부에 두었으나 점차 분묘 보호와 수호신적인 의미에서 봉분 주변으로 둘러지며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

각(陽角)의 12지신상은 신라 28대 진덕여왕 [真德女王 재위 647년 ~ 654년] 룡의 탕석 [撐石 - 봉분 주위를 두르는 돌] 과 흥덕왕(興德王) 룡, 원성왕(元聖王) 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신라 왕룡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분묘 석물을 보여주는 원성왕 [재위 785년 ~ 798년] 의 무덤인 '쾌릉 [掛陵 사적26호]'에서는 문인석1쌍, 무인석1쌍, 돌사자상 2쌍, 탕석의 12지신상 조각, 석주 등이 갖추어져 있어 신라시대의 분묘 치장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후 고려시대의 왕룡들은 대부분 북한의 개성 지역에 남아있어 학술연구 결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3기의 고려시대 왕룡들이 강화도 지역에 전해져오고 있다. 강화 지역의 고려 왕룡들은 분묘의 규모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으며 조선시대의 왕룡 치장과 대조하여 볼 때 석물들의 배치나 분묘 조성의 양식도 단조롭게 보인다.



<성덕왕룡의 십이지상(국립박물관 소장)>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고려시대의 왕룡은 바로 개성에 있는 공민왕(恭愍王) 룡이다. 유교사상이 정치와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조선시대의 왕룡 조성 있어서 능역조성(陵域造成)의 기초와 표본이 된 것은 바로 공민왕룡 [현, 정룡]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공민왕룡은 왕비인 노국대장공주 [정룡] 와 공민왕 [현룡] 의 쌍룡으로 7년의 대역사 끝에 1372년에 완공되었으며, 전대(前代) 왕룡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무인석(武人石)의 출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분묘 석인상 및 석물 등의 배치가 조선시대 왕룡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공민왕룡의 묘역 조성은 공민왕의 지시에 따라 당시 환관이었던 김사행(金師幸)이 공사의 감독을 맡아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전하고 있다. 김사행은 공민왕의 절대적 신임 속에 능역의 조성에 과다한 치장을 하여 파직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공양왕 때 다시 환관으로 복직 되었으며, 왕조가 바뀐 이후 조선태조(朝鮮太祖) 이성계의 왕비 신덕왕후의 능묘조성의 감독관을 지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凶禮治粧條 石物 규정>

종류	개수	높이×넓이×길이(두께)	현장
석난간(石欄干)	12면	총길이 183자 6치	건대석, 우석, 석주, 족석, 동차석주
석양(石羊)	4	3자 × 2자 × 5자	다리안쪽은 파지 않고 플모양 새김
석호(石虎)	4	3자 × 2자 × 5자	네다리 안은 석양과 같이 함
석상(石床)	1	1자5치 × 6자4치 × 9자9치	북모양의 족석 4개 설치
석망주(石網主)	2	높이 7자3치	상, 중, 하층으로 구성(문양새김)
장명등(長明燈)	1	높이 11자9치	정자석, 계석, 대석으로 구성
문인석(文人石)	2	8자3치 × 3자 × 2자2치	관대를 갖추고 홀을 잡은 모양
무인석(武人石)	2	9자 × 3자 × 2자2치	갑옷을 입고 검을 찬 형상
석마(石馬)	4	3자7치 × 2자 × 5자	네다리 안은 석양과 같이 함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태조 이성계의 왕릉인 건원릉(健元陵)은 김사행과 함께 능묘조성과 토목직의 감역관(監役官)을 맡았던 박자청(朴子淸)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으며, 박자청은 3대 태종(太宗)의 헌릉까지 조선초기의 왕릉 조성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 두 사람에 의해 공민왕릉의 왕릉 조성형식이나 양식이 그대로 조선 초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조선시대 왕릉들은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기본으로 삼고, 전대(前代)의 능역(陵域)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성종 때 제정된「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등에 의한 왕릉의 묘역 조성과 석물 등의 규격을 정한 능제(陵制) 규정에 의해 큰 변형이 없이 조성되게 된다.

유교사상이 정치적 기본이념으로 세웠던 조선시대에는 삶의 과정을 떠난 죽음에 대한 예우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며 피장자(被葬者)에 대해 사후공양적(死後供養的) 차원에서 분묘의 치장은 점차 발달하게 되고, 왕릉과 달리 왕족이나 사대부 등의 민묘에서는 문인석(文人石), 장명등(長明燈), 석주(石柱), 석수(石獸), 향로석(香爐石) 등을 세우는 형식이 조선 전기에 생겨났다.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보면 왕족이나 사대부묘의 석물 치장은 점차 과다하게 진행되었으며, 분묘의 석물 치장이 과하여 처벌하라는 내용의 상소문(上疏文)도 많았다고 한다.

1.2. 동자석의 출현

조선 중기 [1500년대] 로 접어들면서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동자석(童子石)이 처음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족(王族)이나 사대부(士大夫) 묘의 석상이었던 동자석은 조선 중기 이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조각 양상으로서, 분묘의 배계절(拜階節) 바로 하단이나 상석 가까이에 세우고, 어린 아이의 형상으로 피장자의 시종을 받드는 듯 다소 허리를 구부리거나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시종의 역할을 하는 듯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사대부 묘 중에 초기 동자석들이 출현하는 분묘는 안양군 [성종의 셋째 아들] 이행 묘, 휴암 백인결 묘, 필재 박광우 묘, 충장공 신립장군 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때 출현한 동자석들의 양식은 쌍상투를 틀고 도포를 입은 전형적인 한대(漢代)의 복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자의 크기는 대개 높이가 50cm ~ 1m 정도이다. 동자석은 조선 중기 이후 분묘의 양식이 왕릉의 축소적 표현이라는 의미보다는 성리학(性理學)이 발달하던 조선 중기 이후 조상에 대한 제사 등이 강조되면서 묘역에 시동(侍童) 역할을 하는 석물의 필요성에 의해 조성 되었으며,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사대부들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다.

1600년대에 들어서면 부터는 많은 분묘에서 동자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점차 분묘 석물의 배치도 동자석과 문인석, 망주석(望柱石) 만을 세우고, 장명등이나 석수 등은 점차 사라져가게 된다. 또한 1600년대 말 이후부터는 동자석의 조형 양식이 점차 지역적 차이를 보

이기도 하며 확고한 분묘조각으로 자리매김 한다.



<신립장군묘의 동자석>



<이장운묘의 동자석>

민묘(民墓)들의 석상 양식은 발생 초기에는 구체적이고 인물묘사에 충실하던 때와 대비하여 조선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점차 조형성이 변형되거나 인체(人体) 비례를 파괴하는 괴형적(怪形的) 모습들이 다수 출현하는데, 이런 경향은 제주동자석에서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왕릉이나 사대부묘의 석인상(石人像)을 제주민들이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왕릉 조성에 제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였다는 기록들이 있다. 가장 먼저 참여했던 기록은 경종 즉위년에 있었던 제19대 숙종의 명릉조성 역사이다. 제주 백성 1백여 인이 올라가 능역(陵役) 조성의 집역에 직접 참여하고 돌아왔으며, 특히 영조 33년의 기록에서는

“제주의 백성 40인이 산릉역사(山陵役事)에 나아가기를 자원하여 올라왔으므로 임금의 명령전에 나아가 소견하고 위유하였다. [중략] 임금이 제주의 시노(寺奴) 유만길과 김원행은 바로 경자년 [경종 즉위년 - 숙종의 명릉역사] 인산 때에 부역한 자인데, 또 부역하러 왔음을 듣고 매우 가상하게 여겨 그의 아들과 손자를 모두 영원히 천인(賤人)에서 면하도록 허락하였다.”

“[원문] 壬戌/濟州民四十人自願赴山陵役上來, 上御明政殿, 召見慰諭之. [중략] 上聞濟州寺奴俞萬吉、金遠行, 是庚子因山時赴役者, 又爲來赴, 甚嘉之, 并其子若孫, 永許免賤”

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이후에도 제주인들의 산릉역사 참여는 영조와 정조의 재위기간 동안 3차례 더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순조 즉위년에 ‘제주인들은 산릉역사에 나오지 말라 [(원문)命濟州民人等, 依先朝已例, 勿赴陵役. 從有司堂上李書九言也.]’는 명에 따라 제주인들의 참여는 중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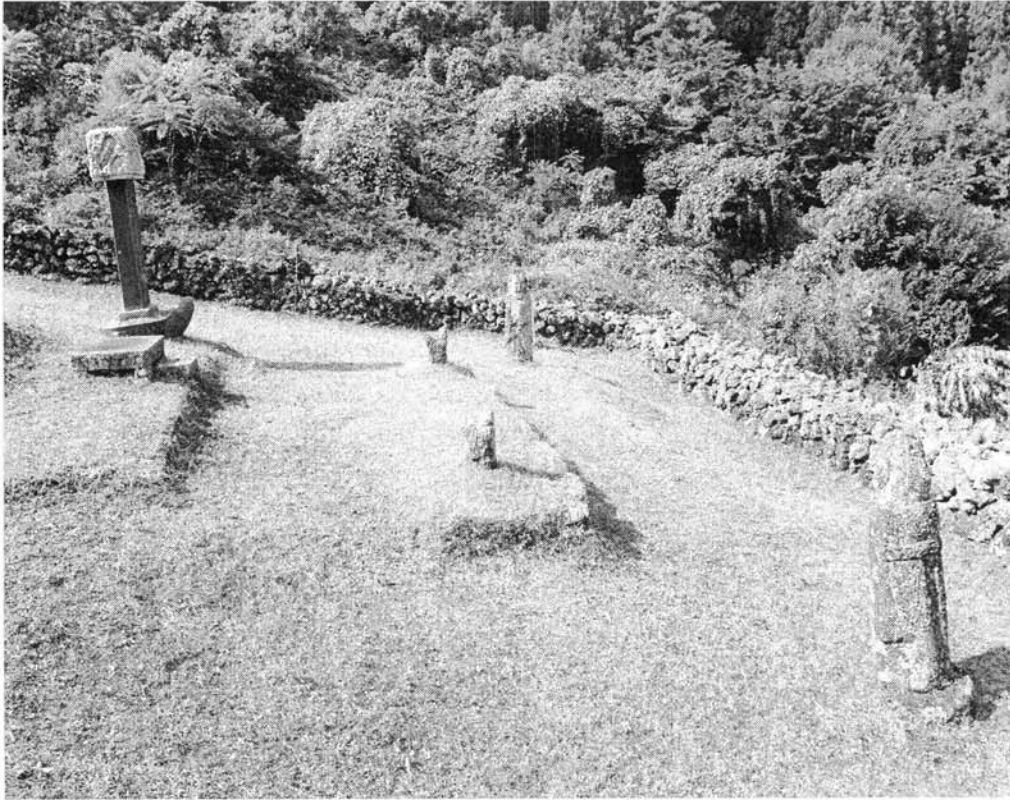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보면 제주동자석의 번성기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의 100여 년 동안 모두 4 ~ 5차례에 200여 인에 가까운 제주인들이 산릉역사에 참여하였고, 이런 기회를 통해 왕릉의 조성양식이나 왕릉 주변 지역 [경기도 와 서울지역 등] 의 사대부 분묘 등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이 제주에 돌아와 제주 석인상의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3. 제주 석인상(石人像)의 출현

제주 석인상의 설치동기와 유래는 육지부의 분묘에 석인상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사유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사료되며, 육지부의 분묘에 대한 직접적 목격이나 제주에 유입된 유배인(流配人)들을 중심으로 성리학의 전파를 통해 분묘에 대한 치장이 새롭게 대두되고, 조선 중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제주에도 본격적인 분묘 석인상이 설치되기 시작하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부터는 분묘의 석물로서 본격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의 제주 석인상들은 크게 문인석(文人石)과 동자석(童子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육지부의 석상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주에서도 그 개체수는 매우 적지만 문인석이 먼저 출현하고 있으며, 이후 16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자석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제주의 문인석과 동자석은 육지부의 석상들과는 차별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주동자석’으로 일괄하여 칭하고자 한다. 이는 제주 석상들과 육지부 석상의 발원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초기부터 형태와 조각수법, 재질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점차 제주만의 조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제주동자석이라 함은 문인석과 동자석을 함께 칭하는 것이다.



<초기 석상 도입기의 분묘 형태>

1.3.1. 초기 제주의 문인석

제주의 분묘에 있는 문인석들은 제작 초기부터 육지부의 석상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형태의 것들도 소수 보이지만 특이한 형태의 문인석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연대는 대략 15세기에서 17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표선면 청주한씨 묘역의 산담 밖에 서있는 조면암 문인석 1쌍과 구좌읍 오름 기슭에 널따랗다 자리한 부공묘의 현무암 문인석은 몸통 좌우로 팔부분이 양각(陽角)으로 표현되어 상반신이 허리 부분보다 넓게 제작 되었고, 복두의 모양도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하원동 탐라왕자묘 출토 문인석과 같이 손에 잡고 있는 홀의 길이가 길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석상들은 모두 외형이 비슷하고, 피장자들의 몰연대(歿年代)로 보아 초기의 제주 문인석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현마공신 '김만일'의 묘소의 문인석 또한 매우 드물게 원통형으로 제작되었으며, 두상부가 신체 비례에 비해 매우 크고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제주 문인석들은 대부분 동자석과는 그 모양과 형태가 다르게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동자석과 문인석은 복두(幘頭)의 표현을 빼고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

어 간다.

초기의 제주 석상들은 조각기술이 매우 섬세하고 세밀한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얼굴 부분의 세부표현도 거의 인체(人体)와 비례하게 조각되지만 17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표현방식이 간소화(簡素化)되고 변형되어 몇몇 석상에서 사람의 형상과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도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육지부의 문인석이 거의 모두가 홀(笏)을 잡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지만 제주의 문인석은 홀 외에도 다양한 지물(持物)을 들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2. 초기 제주의 동자석

1.3.2.1. 쌍상투형 동자석

육지부의 동자석은 대부분이 머리에 쌍상투를 들고 있다. 이것은 16세기 중엽부터 출현하는 동자석의 양식이 초기 사대부(士大夫) 묘에서 비롯되면서 점차 정형화되어 일반 민묘(民墓)에까지 굳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인석에 비하여 동자석들은 두상부(頭狀部)가 크게 표현되며 동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육지부 동자석의 초기 석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두상부가 신체(身體) 비례에 비해 크고, 쌍상투를 들고 있으며, 의복 표현이 섬세하며 의복 밑으로 발까지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여러 묘소에 설치된 석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德興府司訓鄭院公之墓>



<애월읍 부씨묘역>



<通政大夫李公之墓>

그런데 제주에서도 쌍상투를 한 제주형 동자석들이 존재한다. 제주시에 있는 ‘禦侮將軍行 訓練院僉知○公之墓’의 동자석은 명확한 쌍상투를 틀고 있으며 제주의 많은 분묘에서도 동자석이 유일하게 봉분을 향하여 술잔을 높이 받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동자석은 피장자의 몰연대(沒年代)인 ‘康熙庚戌年’으로 대략 1670년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현무암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지만 옷깃 하나하나의 표현에도 매우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자석의 배면에도 의복과 요대의 표현을 하였으며, 봉분을 향한 동자석의 방향 또한 유일한 패턴이기에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04년 10월에 도난되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뉴스거리가 되었던 애월읍 부씨 묘역의 동자석 1쌍도 쌍상투를 하고 있으며, 이 동자석 또한 조각표현이 매우 섬세하고 좌우 대칭적의 구조로 잘 다듬어진 동자석이다. 이 동자석은 분묘의 비석까지도 분실된 상태라 피장자에 대한 신분이나 몰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제주시 오라동의 通政大夫李公之墓의 조면암 동자석 또한 쌍상투의 머리 형태를 보여준다. 세월이 오래되어 한 기는 파손된 상태이고 남은 한 기는 마모가 많이 되었지만 두상부를 보면 쌍상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대략 1600년대 후반이나 1700년대 초의 석상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동자석들은 각각 형태적 변화를 거치면서 쌍상투는 사라지고 외형적인 형태들이 전이(轉移)되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2.2. 조면암류 동자석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지난 1997년에 발굴한 ‘탐라성주 고봉례묘 추정지’의 발굴 조사 과정에서 동자석이 두상부가 절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동자석은 조면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쪽진 머리형의 의복 표현의 특이한 형태로 원통형 동자석의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1기만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이 동자석이 피장자의 몰년인 1411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동자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출토 지점과 당시 발굴보고서에 기록으로는 조선 중기 이후의 석상이라는 추적만 가능할 뿐 고봉례묘추정지의 석상이라는 확증이나 객관적이 자료가 전혀 없다.

[참조 : 제주대박물관 조사보고 ‘탐라성주고봉례묘추정지’ 분묘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발췌 내용]

① “.....발굴대상지는 화북2동 3401번지(A구역 - 고봉례묘추정지 쌍분구역)와 3402번지(B구역 - A구역 뒤편 민묘 3기 유적지)으로 명명하고.....” 18p

② “.....B구역(민묘3기 유적지)은 쌍묘(고봉례묘추정지) 뒤편에 형성된 능선상의 밭으로... 이 밭에서 무덤앞에 두는 소형 동자석과 제단석 2기, 비석하대석 등 무덤 관련 석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18p

③ “.... 그(동자석) 크기는 28×19×69cm 이다. 간략화 된 몸체와 둥그스름한 얼굴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이 동자석은 머리 부분과 몸체가 따로 떨어져 확인되었다. 몸체 부분은 A-1호분(고봉례추정묘-1) 뒤편 석축 부분에서, 머리 부분은 B 구역(민묘3기 유적지) 석축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64p~65p

위 보고서 내용으로 보아 동자석은 고봉례묘 추정지의 석상이 아니라 B구역(민묘 3기 유적지)의 석상으로 추정되며, 이 민묘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장되어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동자석은 제주의 장례풍습 상 분묘를 이장할 시에 석상들을 구묘역(久墓域)에 묻거나 산담 등에 방치하는 등의 풍속에 의해 버려진 석상으로 추정된다.

둘째, 육지부 분묘의 동자석은 조선 중기 [중종 - 서기 1550년 전후] 이후에 출현하고, 분묘의 석상문화 또한 이 시기에 제주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데 그보다 앞선 1400년대 초에 동자석의 출현한다는 것은 석상문화의 유입과정 상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며,

셋째, 이 시기 [1400년대 초] 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제주도의 초기 묘역이나 출토 유물 중에 이 동자석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적(指標的) 석상이나 유물 등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더더욱 확신할 수가 없다.

경기도 지역의 한 박물관에 ‘16세기 제주동자석이 있다’는 광고 글을 보고 어렵게 찾아간 곳이 있다. 그곳에는 30여기의 제주동자석이 있었는데 그 중 1쌍의 동자석이 고봉례묘추정지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동자석과 아주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외형적 크기나 대기표현방법, 측면 모습 등은 거의 동일하다고 느낄 정도였으며, 다만 얼굴부분과 손부분의 조형적 표현이 차이를 보이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동자석 또한 정확한 연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다만 추정을 할 뿐이었다. 석질이나 표현방법 등에서 볼 때 고봉례묘 추정지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동자석과 비슷한 시기의 석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7년 12월에 발견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경주김씨 입도 8세인 ‘通政大夫行坡州牧使兼監牧官金公大振墓’ 묘소의 동자석은 고봉례묘 추정지의 석상이나 경기도 박물관 소재의 16세기 제주동자석이라는 석상과 외형이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원통형이며 의복의 표현방식이 두 석상과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조면암으로 제작되었다. 이 동자석은 얼굴의 세부표

현이나 손가락 등의 표현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며 뒷면의 땀기 또한 매우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석상의 존재 여부를 후손들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필자가 세 번째 조사 방문차 들렀을 때 파손된 채 [1기는 파손이 거의 없이 2등분으로 절단된 상태이고, 1기는 두상부가 없고 다소 파손된 상태] 산담 속에 묻혀 있었다. ‘김대진’은 현마공신으로 유명한 ‘김만일’의 넷째 아들이며 ‘肅宗乙丑年’ [1685년] 에 이곳 와흘리에 안장되었다는 족보상의 기록이 있다.

이 동자석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연대추적이 불가능했던 고봉례묘 추정지 발굴 동자석이나 경기도 박물관의 16세기 제주동자석 등의 연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그 추정 연대는 대략 1650년대 전후로 사료된다. 이 동자석은 비록 절단된 상태이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조각상태가 잘 유지된 상태이다.



<고봉례묘 추정지 발굴
동자석>



<경기도 박물관의
동자석>



<와흘리 김대진묘
동자석>

II. 제주동자석의 전개 과정

2.1. 제주 석인상의 특징

제주의 석인상과 육지부의 석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석상의 재료가 다르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육지부의 석상들이 대부분 화강암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반면 제주의 석인상들은 그 재료가 현무암, 용암석, 조면암 같은 화산암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조각양식에 있어서도 육지부의 석상들은 매우 세밀하고 신체(身體) 전체를 표현하고 있지만 제주 석상들은 매우 간결하고 과격적이며 신체 하반신의 표현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동자석인 경우는 대부분의 육지부 동자석들이 쌍상투를 틀고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반면 제주동자석들은 쌍상투가 아닌 민머리형이나 댕기형, 변발형(辮髮形), 쪽진 머리형 등으로 두상부 표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의복 및 몸체의 표현에 있어서는 육지부의 석상들보다 간결하고 특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과감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화강암보다 세부적 표현이 어려운 현무암을 사용한 동자석에서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지만 일부 초기의 조면암류 동자석에서는 얼굴이나 손, 옷고름 등의 표현 매우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주동자석이 출현하는 18세기 이후부터는 조각양식이 점차 생략적(省略的)이고 상징적(象徵的) 표현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머리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 초기의 석상들 중 다수에서 ‘쪽진 머리’ 형태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자석의 성별 표현이 초기에는 시녀 [결혼한 여자] 들을 표현했던 것이 많았으나 19세기 이후로는 쪽진 머리형의 석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적인 댕기표현으로 흐르고 있다.

제주 석상들의 차별적인 또 하나의 특징은 석상들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지물(持物)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육지부의 동자석들이 들고 있는 지물이 대부분 단순하고 종류가 많지 않은 반면 현재 제주 석상에서 보여 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물들은 홀, 술병과 술잔, 주걱모양, 창, 새, 꽃, 부채, 뱀 등과 함께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지물들을 볼 수 있다. 지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지물표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런 지물에 대한 해석과 연구 작업이 충실히 진행된다면 제주석상에 대한 많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2. 제주 석인상의 전개 과정

2.2.1. 도입기(導入期)

제주동자석의 도입기는 육지부의 석상문화가 유입되어 제주에 석상들이 생겨나는 시대를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인석이 먼저 등장하고 동자석이 후에 등장하는데 그 시기는 대략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 초반을 ‘도입기’라 칭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석상들은 개체가 수가 매우 적고 조각양식의 변형이나 발전 과정을 자세하게 유추할 수 있는 매개적(媒介

的) 석상들이 드물다. 문인석의 경우 15세기의 석상이 4기, 16세기 석상이 2기 정도가 분포하고, 이후 17세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문인석들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동자석들은 17세기 중반에 와서야 출현하며, 쌍상투형 동자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형적인 제주 동자석들의 특징을 보여주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도입기 단계의 동자석들은 지역적, 재료적 분포가 제주도 전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 시기의 석상들이 분포하는 분묘들은 규모와 석물 배치가 양호하고 피장자(被葬者)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할 수 있어 자세한 조사를 통한 문화재 지정의 가치성이 있는 분묘로 사료된다.



<청주한씨 묘역의 문인석>



<구좌읍 부씨묘역의 문인석>



<김만일묘의 문인석>

2.2.2. 발흥기(發興期)

제주동자석의 발흥기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 말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육지부의 분묘 석물 형식과 비슷하게 조성된 묘들을 여러 기 관찰할 수 있으며, 석물의 배열순서 또한 분묘로부터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의 순으로 정렬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즉, 도입기에 이어 분묘의 치장이나 형식 등이 육지부의 분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단지 석상의 형태와 재질 등의 차이를 보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발흥기 단계의 분묘들의 특징은 산담의 형태 또한 주종을 이루는 제형 [梯形 - 사다리꼴] 의 산담이 아니라 주로 방형 [方形 - 직사각형] 의 산담 형태를 보이며, 산담의 폭이 넓게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분묘 내의 계절석이 2단계 이상으로 조성되거나, 귀부, 혼유석 등의 석물들이 고루 잘 갖춰져 있고, 토신단이 상석형이 아닌 축조식 토신단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시기의 석상들이 분포하는 분묘들도 문화재적 가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장자의 신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조사와 분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3. 변성기

제주동자석의 변성기는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동자석의 최대 성행기(盛行期)라 할 수 있는데, 피장자의 신분이 낮은 일반 평민들의 분묘에서도 동자석이 나타나고, 석상의 모양과 크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이 시기에는 일정한 유형의 석상들보다 다양한 모양의 석상들이 더 많이 나며, 석상 배열에 있어서도 ‘동자석+문인석+망주석’의 정형적인 배열에서 ‘동자석+망주석’, ‘동자석’만 쌍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석상이 위치도 배제절 부분에만 아니라 산담 구석이나 산담 위에 세우는 등 위치적 변화도 많이 보이게 된다.

이러한 석상의 성행기는 몇몇 석상에서는 과격적인 유형 변화도 생기는데 사람의 형상과 다른 모습의 석상이나 얼굴과 몸체의 비율이 1:1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두상부만 조각하고 몸체에는 조각을 하지 않은 석상들도 발견된다.

2.2.4. 쇠퇴기

제주동자석의 쇠퇴기는 20세기 후반을 말한다. 1950년대까지는 제주도 전역에서 고유의 제주동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유형의 석상들이 다수 발견되고 지역적, 형태적 다양성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주동자석은 1970년대까지 세워진다.

1970년대 이후의 분묘 석물들은 대부분 기계 가공형 석상이거나 값싼 중국 수입산 석상들이 대부분이며 석상뿐만 아니라 분묘의 다른 석물들 또한 수입 석재들로 대체되고 있다.

제주동자석은 이제는 새롭게 세워지지 않는 ‘수치적(數值的) 한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부와는 분명히 다른 제주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점에서 ‘지역적(地域的) 한계’에도 직면해 있다. 이미 많은 개체수가 도난과 밀반출로 사라졌고 그와 같은 범죄행위는 지금도 암암리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라져가는 제주동자석을 이제는 정말 발 벗고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주동자석의 소멸기(消滅期)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석상에 대한 시급한 조사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중요 석상이나 분묘에 대해서는 특단의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제주동자석의 조각 양식과 지물(持物)

3.1. 조각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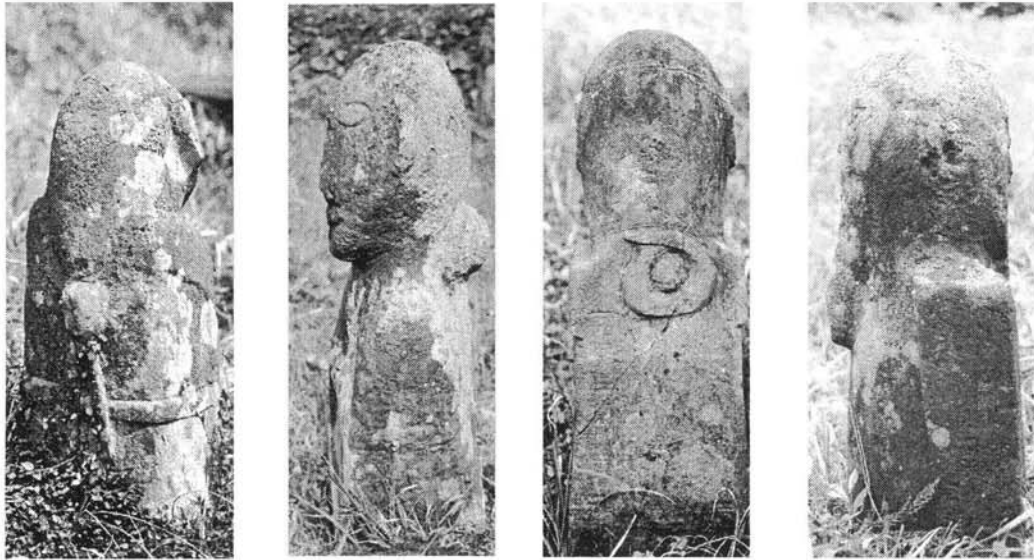
제주동자석은 크게 두상부(頭上部)와 몸통부로 나눌 수 있다. 두상부와 몸통부의 신체 비율은 대개 1:2에서 1:1.5 정도가 대부분이며 이는 석상의 매립부(埋立部)를 제외한 지면의 노출 부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간혹 두상부가 작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신체 비율이 1:3을 넘지 않는다. 석상의 이러한 신체 비율은 동자석의 유입 과정이나 발전과정에서 전례를 답습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석상의 특징 상 어른의 형상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형상으로 표현하다보니 두상부가 몸통부보다 크게 표현되는 특징이 이어져오지 않았는가 추측해 본다.

제주동자석의 신체 표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육지부의 동자석이나 문인석의 경우 얼굴에서부터 몸통을 표현하다가 의복의 표현 아래로 신발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제주동자석에는 발을 표현한 경우는 없다. 주로 두상부와 몸통부 만을 표현하고 몸통부의 아래 부분으로 매립부를 표시하는 음각선이 있거나 몸통부보다 다소 넓게 거친 다듬을 한 형태로 매립부를 표현하고 있다. 몇몇 분묘에서는 매립하는 방식이 아닌 석상의 아랫부분을 편평하게 다듬거나 각지게 다듬어 좌대에 설치하는 형태로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다.

제주동자석의 두상부는 대개 타원형(橢圓形)이나 원형(圓形), 장방형(長方形)의 얼굴모양을 한다. 몸통부가 대개 직각기둥 모양에 단순히 팔이나 의복의 표현을 하는 반면 두상부는 동그스름한 얼굴 형태에 눈, 코, 귀, 입을 새긴다. 눈 부위와 입 부위는 양각이나 음각으로 표현하지만 코 부위와 귀 부위는 양각의 입체적인 조각 양식을 보인다. 눈 부위와 입 부위의 표현은 음각선, 단일 양각 돌출형, 이중 양각선, 이중 양각 돌출형 등으로 구분되고, 코 부위의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 양각 입체형 표현을 보이는데 일부 콧구멍까지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귀 부위 모양은 '3'자형, 초생달형, 터진 고리형, 돌출형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두상부의 후면부(後面部)에는 다양한 머리 표현 형식들이 나타난다. 제주동자석의 머리 모양은 크게 민머리형이나 땃기형, 변발형(辮髮形), 쪽진 머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동자석의 의복 표현은 대개 도포(道袍)와 같은 양식의 옷을 표현하는 것이 많으며, 허리는 요대(腰帶)를 앞뒤로 두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의복의 표현에 있어 전면부에는 지물이 있어 지물의 위나 아래로 요대만을 표현하고, 후면부에는 옷깃과 요대, 땃기 등을 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 다양한 '쪽진 머리'의 표현 사례 >

3.2. 크기와 설치 위치 및 방향

3.2.1. 크기

동자석의 경우는 크기가 대략 40cm ~ 100cm 정도이다. 이는 매립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 높이를 말하며, 실제 분묘에 세워진 석상들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5cm ~ 80cm 정도이다. 대개 매립 부분의 높이는 10cm ~ 30cm 정도이며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매립 형식이 아닌 좌대에 올려지는 석상들의 경우는 깊이가 대략 5cm ~ 10cm 사이에서 좌대에 얹히는데, 대부분 사각형의 모양으로 다듬어서 설치한다.

문인석의 경우는 크기가 50cm ~ 170cm 정도이며 매립 부분은 10cm ~ 50cm 정도이다. 문인석은 통상적(通常的)으로 동자석의 1.5배 ~ 2배 정도 크게 제작된다. 문인석이 좌대에 설치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이 흙속에 그대로 매립되어 설치된다.

3.2.2. 설치 위치

분묘 내에서 석상들이 세워진 위치는 대부분 배계절의 좌우측에 설치된다. 봉분으로부터 앞쪽으로 혼유석과 상석이 놓이고 상석의 끝선을 따라 봉분의 폭보다 조금 넓은 배계절석이 설치된다. 대개는 동자석의 경우 이 배계절석의 좌우 끝에 위치하고 문인석의 경우는 동자석보다 바깥쪽에 좀 더 넓은 폭으로 설치된다. 오래된 묘에서는 동자석과 문인석의 사이에 망주석이 설치되기도 하고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의 순으로 배열되기도 한다.

일부 분묘에서는 석상들의 위치가 산담 내부의 좌우측 모서리에 세워지는 경우나 산담 위에 석상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분묘에서는 동자석은 배계절에 문인석은 산담 위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산담 위에 석상을 배치한 분묘(표선면)>

3.2.3. 방향

제주동자석들은 거의 모두가 상석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형태로 세워진다. 두 석상간의 거의차이는 다양하지만 95% 이상이 마주보게 설치되는 것이 주된 양상이다. 하지만 몇몇 분묘에서는 동자석이 봉분을 향해 있거나 분묘의 전방을 향해 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설치의 형태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봉분을 향한 경우는 마주보는 경우처럼 피장자에 대한 시중꾼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3. 지물(持物)

지물(持物)이라 함은 동자석의 가슴 부위에 물건이나 문자, 여러 가지 모양 등을 새긴 것을 말한다. 지물은 석상의 설립 당시 기원적(基源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라 할 수 있으며 지물의 해석을 통해 개별 동자석의 기능적(機能的) 의미 또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동자석의 가슴 부위에는 크게 나누어 지물이 새겨진 경우와 손 표현만 있고 지물을 새기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물의 유무에 의한 구분과 지물의 있는 경우 지물의 의미적 구분, 지물의 표현 다양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3.3.1. 지물의 유무에 따른 구분

지물의 형태적 구분은 지물형 동자석과 동자석의 가슴 부위에 손을 표현하고 물건이나 문자, 다른 도상을 새기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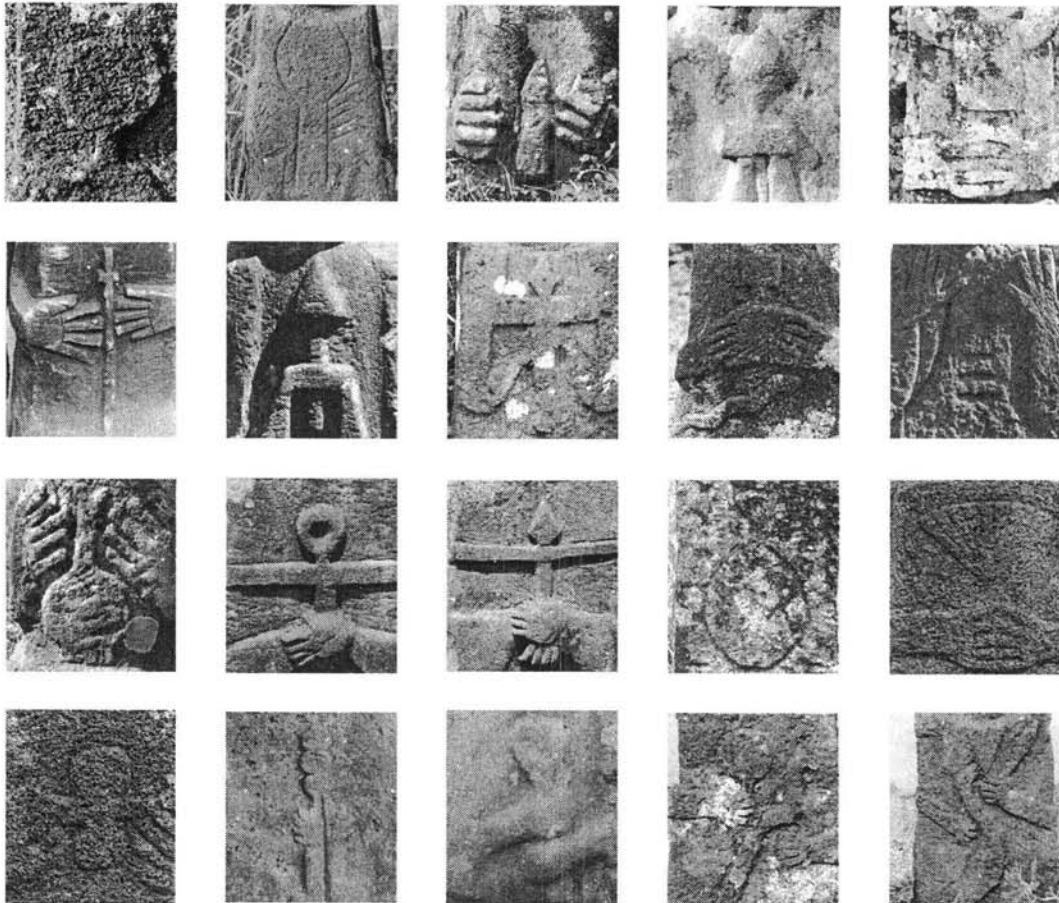
- 지물형(持物形) 동자석 : 동자석의 가슴 부위에 다양한 지물들이 새겨진 동자석을 말한다. 지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한 종류의 지물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지물형 동자석에는 문자가 새겨지거나 두 가지 이상의 지물을 함께 표현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 공수형(拱手形) 동자석 : 지물이 새겨져 있지 않고 손만 표현된 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동자석을 말한다. 공수형 동자석의 경우 양손의 모두 표현되거나 깎지를 낀 듯한 표현, 손의 표현이 없이 양팔의 소매 자락이 이어져 표현된 경우 등을 말한다.
- 역사형(力士形) 동자석 : 양 손만 표현된 채 양 손이 위 아래로 엇갈려 표현된 경우를 말한다. 돌하르방의 경우나 불가(仏家)의 사천왕상(四天王像)처럼 역사적(力士的), 수호적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사료된다.

3.3.2. 지물의 의미적 구분

동자석이 들고 있는 지물의 종류에 따라 의미적 구분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배례형(공수형) : 망인에 대한 예의적 자세를 표현
- 홀, 부채, 붓 : 유교적 영향에 의한 표현
- 숟가락, 우금 : 망인에 대한 봉양적 의미의 표현
- 술병, 술잔 : 제례 시의 보조적 역할을 표현
- 칼, 창, 방망이 등 : 분묘와 망인을 지키는 수호적 표현
- 새, 뱀, 물고기 등 : 원시 종교적, 토테미즘적 신앙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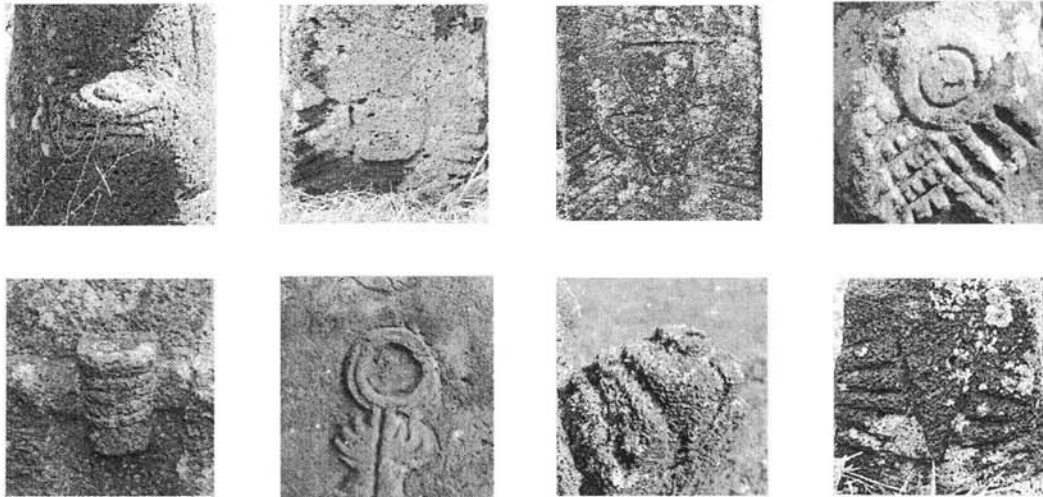
- 겹수형 : 사천왕상이나 돌하르방과 같은 역사적(力史的) 표현
- 문자형, 꽃, 꼭두, 악기, 놀잇감, 기하학적 문양 : 망인에 대한 후손들의 배려적 표현



<다양한 지물의 표현 사례>

3.3.3. 지물 해석의 중요성

지물 표현에 대한 그 해석의 접근은 매우 신중하고 타당성(妥当性)을 근거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지물에는 설치 당시의 민구류(民具類)나, 사회적 풍속(風俗), 유행적(流行的) 사례, 조각 표현의 유연성(柔軟性) 등을 고루 감안하여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자석의 모아진 손에 조그만 구멍이 위로 뚫려 모양을 흔히 향을 모아 쥐는 형상으로 해석하지만 그 석상의 설치 당시에 향의 모양이 지금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지물을 해석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사진과 같이 술잔을 표현한 경우 [반대편의 동자석은 모두 술병이 표현되어 있음] 도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때 지물의 해석은 쌍을 이루는 석상의 지물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 술잔을 표현한 사례 >

현재 필드에 있는 동자석의 지물들은 대략 100여 가지 이상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구분 방법이 올바른가에 대한 검증과 사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 작업은 필드조사가 완료된 후 분묘를 이탈한 동자석까지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4, 5차례의 육지부 박물관의 동자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동자석들 중 일부는 그 지물의 종류가 제주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바이올린이나 아쟁과 같은 악기류, 연날리거나 재기차기, 윷놀이 등을 표현한 경우 등 실제 제주동자석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석상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석상들의 경우는 지물연구의 대상에서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제주동자석에 대한 지물 연구는 샘플링 개체수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가 산출될 것이며, 동자석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한 분야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IV. 제주동자석의 분류

4.1. 암질별 분류

제주동자석의 가장 큰 특징은 석상의 재료로 제주석(濟州石)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육지부의 석상들이 대부분 화강암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반면 제주동자석들은 제주의 들녘에 널려있는 풍부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었던 것이다. 제주동자석들은 화산분출의 결과로 생성된

현무암계 석상들이 재료로 사용되며 종류별로는 현무암, 조면암, 조면질 안산암, 용암석(화산쇄설암) 등이 있다.

이 암질들의 특성은 화산활동으로 생성되는 암석들인데 용암이 지표에 흘러서 생성된 돌과 용암이 지표로 흘러나올 때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지표에 쌓임으로써 생성된 암석, 그리고 화산분출시 분출된 화산쇄설물 등으로 구분된다.

- 현무암(玄武巖): 사장석과 보통 휘석을 주로 하는 세립의 화성암이다. 주로 흑색 계통의 어두운 색을 띠나, 풍화를 받으면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함. 반상조직을 보이며, 주로 사장석이나 휘석이 반정을 이루기도 한다. 암체는 괴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주상절리로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다공질인 경우도 흔하다. SiO_2 함량이 적으므로 유동성이 커서, 용암이 흐르면서 냉각되어 생긴 유동 구조도 관찰되며, 화산체의 경사가 완만하여 순상화산을 이루거나 용암대지를 이루기도 한다. 분출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석이며, 해양지각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백두산 남부, 강원도 철원, 울릉도, 한탄강 부근에도 많이 분포한다.
- 조면암(粗面巖) : 흑운모·각섬석·휘석 등의 어두운색 광물을 소량 함유하는 알칼리 장석으로 구성되고, 밝은 색을 띤 극세립질 분출 화성암. 조면암은 보통 화산지대에서 다른 용암과 함께 산출되며, 근원(根源) 현무암질 용암으로부터 철·마그네슘·칼륨 광물의 결정화작용과 정출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면암은 보통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칼리(정상) 조면암과 나트륨(알칼리) 조면암으로 나뉜다.
- 조면질안산암(粗面質安山巖) : 나트륨(알칼리) 조면암이 알칼리 장석과 어두운색 광물은 모두 나트륨을 많이 함유한다. 사장석에 대한 알칼리 장석의 비가 감소함에 따라 조면암은 조면안산암(latite)으로 바뀐다.
- 용암석 [熔巖石 - 화산쇄설물] : 화산의 분화로 분출되는 고체 물질의 일종으로 폭발적 분출에 의하여 생성된 암석과 덩어리, 개개의 알갱이들을 가리켜 화산쇄설물이라 하는데, 화산회, 라필리, 블록 혹은 화산탄 등이 이에 속한다. 스킨리아라 함은 기공을 많이 가지는 분출물로 주로 붉은 색을 띠며, 대체로 물에 뜨지는 않으나 아주 드물게 물에 뜨는 경우도 있다. 스킨리아를 제주도에서는 '송이'라 부른다. 또한 화산쇄설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산탄이다. 화산탄은 화산폭발 시 공중으로 분출된 마그마 방울이 공기 중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동안 공기와의 상호마찰에 의하여 방추형, 리본형, 소동형, 빵껍질형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 생성된 화산쇄설물이다. 화산탄 내부에는 간혹 반려암이나 맨틀포획체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 암석들의 채취 장소로 잘 알려진 곳은 북촌리 일원의 현무암, 서귀포시 걸쇠오름의 조면암, 산방산 주변의 조면질안산암 등이며 용암석의 경우는 오름 주변에서 다른 화산쇄설물들과 함께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동자석의 암질별 분포 또한 제주시 지역의 경우는 현무암 계열의 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서귀포시 지역은 현무암, 조면암의 분포가 우세하고, 용암석과 안산암 계열이 뒤를 따른다.



<현무암>



<조면암>



<용암석>



<조면질안산암>

4.2. 형태별 분류

동자석의 형태별 분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몸통의 형태에 의한 구분이라 할 수 있으며, 원통형(圓筒形), 반원형(半圓形), 판석형(板石形), 각주형(角柱形)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형태적 특성을 설치연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오래된 동자석의 경우 원통형이나, 반원형, 판석형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모두 각주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 원통형(圓筒形) : 주로 도입기나 발흥기의 석상들로 암석을 전체적으로 원통형으로 다듬은 후 세부 가공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 반원형(半圓形) : 석상의 전면부는 편평한 면에 얼굴부위와 지물 등을 세기고 후면부는 둥그스름한 형태를 보이는 석상들을 말한다. 원통형 동자석들과 함께 발흥기까지의 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판석형(板石形) : 동자석을 정면으로 좌우 폭이 앞뒤 폭보다 넓은 판석형으로 제작된 석상을 말하며, 그 개체수는 많지 않지만 각주형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에 판석형으로 구분한다. 도입기와 발흥기의 시기에 나타난다.

- 각주형(角柱形) : 대부분의 동자석이 각주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사각기둥모양으로 돌을 다듬은 후 두상부와 몸통부를 나누고 각기 세부 조각을 하는 것이 제주동자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각주형의 동자석은 사각추형과 직각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각추형의 석상들이 직각주형의 석상보다 편년적으로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통형 동자석>



<반원형 동자석>



<판석형 동자석>



<각주형 동자석>

4.3. 머리 표현에 의한 분류

제주동자석의 표현적 특징 중의 하나는 동자석의 뒷면에 나타나는 머리표현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석상들은 주로 양각이나 음각의 댕기를 표현한 석상들이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쪽진 머리'를 표현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쪽진 머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모두가 입체적인 양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세분하여 쪽진머리와 쪽진댕기머리로 나눌 수 있다.

조선 중기의 민화(民畵)나 풍속도(風俗圖), 신선도(神仙圖) 등에서 아이들이 쌍상투를 틀고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된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육지부의 시동(侍童)의 개념은 분명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아이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육지부 분묘의 동자석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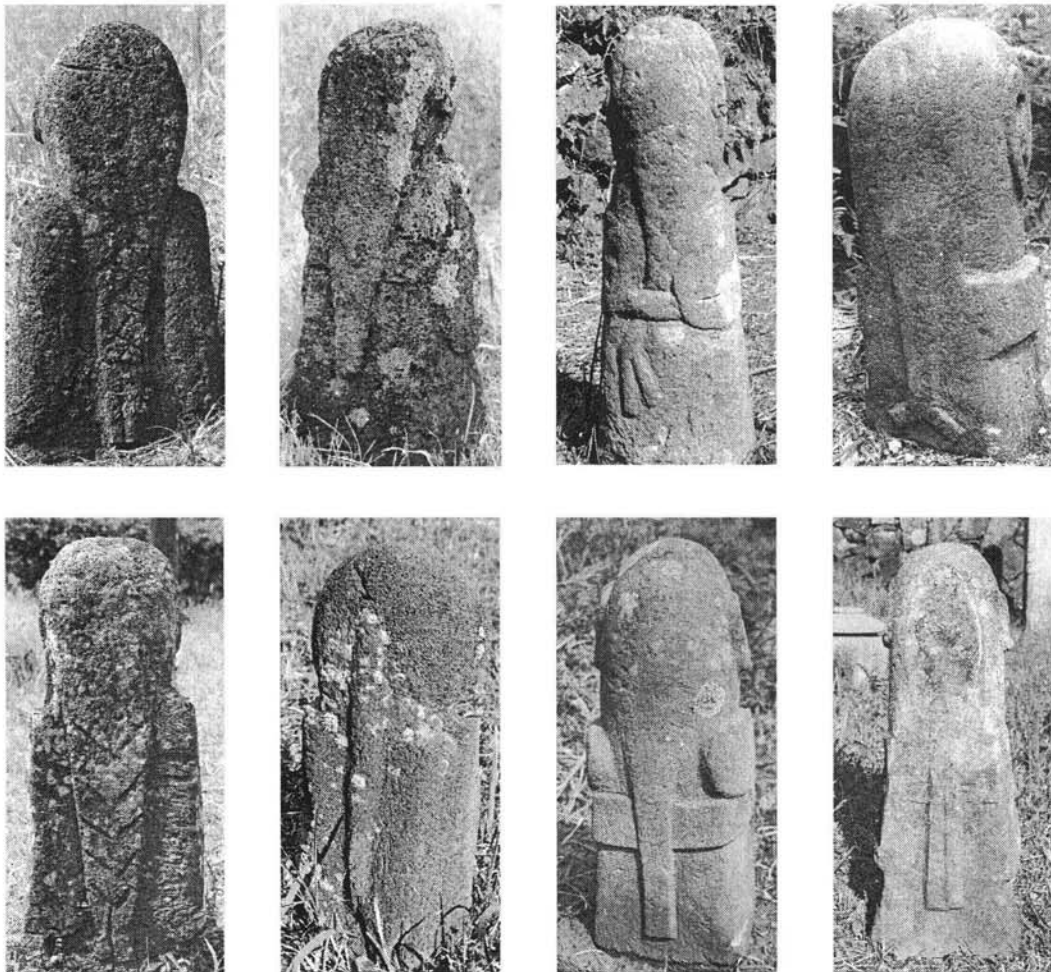


<육지부 동자석의 머리 모양>

이에 충실한 듯 대부분이 쌍상투형 동자석을 분묘 상석의 앞 좌우에 배치하여 망인의 시중을 받드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도입기나 발흥기의 분묘, 또는 번성기의 분묘에서도 쪽진머리를 한 동자석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 아이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시중을 드는 시녀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 시녀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드물지만 쪽진 머리와 땡기머리로 구분되는 형식은 동자석의 성별 구분을 가능케 한다. 또한 땡기머리의 경우에서도 이 표현양식이 반드시 남자 아이의 표현인지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땡기머리를 표현한 경우는 양각이거나 음각, 따운 머리의 표현이 민무늬이거나 X자형, 교차X자형, 민머리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제주동자석의 다양한 땡기 표현 >

V. 제주동자석의 분포와 반출 현황

5.1. 제주동자석의 분포 현황

지난 2003년부터 6년여 동안 필드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된 석상은 대략 1,240여기 정도이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지역별(地域別) 분포현황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물론 분묘를 떠난 동자석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2,000기가 넘을 것이나 분묘 이탈 석상들의 출처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필드에 소재한 석상들만을 대상으로 분포현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석상들 중에는 본래 분묘의 위치가 아닌 이장이나 철리, 납골 등의 사유로 다른 곳에 안치된 경우도 있지만 조사 당시 확인된 곳을 분포지로 하였음을 미리 전제하고자 한다.

<제주동자석의 분포현황>

지역	읍면	동자석 (기)	문인석 (기)	석상합계 (기)	백분율	망주석 (기)
제주시 동지역		199	46	245	19.66%	82
제주시 읍면지역	한림읍	4	2	6	0.48%	2
	한경면	10	0	10	0.80%	4
	조천읍	144	34	178	14.29%	49
	애월읍	100	22	122	9.79%	28
	구좌읍	147	48	195	15.65%	54
서귀포시 동지역		129	34	163	13.08%	35
서귀포시 읍면지역	표선면	75	52	127	10.19%	37
	안덕면	35	16	51	4.09%	10
	성산읍	59	16	75	6.02%	26
	대정읍	18	6	24	1.93%	0
	남원읍	36	14	50	4.01%	10
총계		956	290		100.00%	337
		1,246				

제주동자석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지만 조사 결과 제주시 동지역과 제주도 동부지역 [조천, 구좌읍] 지역에 분포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이어 있는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의 경우는 전체 분포의 30% 정도 밀집하여 분포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는 전체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서부 지역인 한경면과 한림읍에는 그 분포가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지역 또한 서귀포시 동지역과 동부지역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상대적으로 서부지역 [대정읍, 안덕면] 은 그 분포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에 편중(偏重)되어 동자석들이 세워졌고, 이는 석상의 재료가 되는 석재 채취와도 관련이 있으며, 제주의 풍수사상(風水思想)이나 지역적 분묘문화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동자석의 최종적인 조사가 완료되어 분포현황을 봤을 때는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역적 편중이나 장례문화(葬禮文化)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2. 제주동자석의 수난

동자석에 대한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조사 과정 중에 동자석의 분실에 대한 과거 기사들을 다수 접하게 되었다. 제주민(濟州民)들은 산담을 경계로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를 짓지만 그 경계는 다만 의식적 경계일 뿐 후손들은 대대로 선조묘(先祖墓)에 대한 봉양(奉養)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다. 조상묘의 석상을 훔쳐간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여 어느 날부터인가 개인집 정원이나 사치스런 건물의 후원에 장식용으로 쓰인다며 하나 둘씩 사라져 버리고 있다. 제주의 풍습 상 일년에 한두 번 벌초와 성묘 때에 분묘를 찾는 상황이기에 벌초철이 되면 선조묘의 석상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줄을 잇는다. 이미 석상들은 외부로 반출되어 옥지로 나가든지 개인집 정원 등에 깊숙이 종적을 감춘 후이다.

제주동자석이 골동품이나 고미술상점에 거래 매물(売物)로 나타나는 경우는 단순하다.

첫째는 제주 풍습의 하나인 철리 [遷移] 시에 구 분묘의 석물들을 방치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주된 풍습이었는데, 이때에 석물의 처리를 장례업자에게 일괄 위임하면서 석상들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후손들은 풍습(風習)에 따라 정리를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주의 문화유산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기에, 제주동자석에 대한 애정이나 학술 자료적 가치, 제주 민속 문화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본다면, 이럴 경우 석상들을 도내의 박물관이나 교육시설 등에 기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기증받는 기관들 또한 석상에 대한 출처 자료와 기증자, 분묘의 정보 등에 대한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증의 의미를 잘 살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 도시계획 사업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분묘이장이 이루어지면서 거래시장에 등장하게 된 석상들이 많다고 하지만 무연분묘에서는 거의 석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동자석들이 세워진 분묘에는 대부분 비석을 꼭 갖추고 있으며, 비문의 내용으로도 그 후손을 찾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일부 이런 개발사업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석상이라는 말들은 허울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는 도굴과 밀반출이다.

거래되고 있는 제주동자석의 대다수가 도난에 의한 반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절도(竊盜)와 도굴(盜掘)에 의해 판매되는 동자석들은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보통 4, 5단계 이상의 중간 거래과정을 거쳐 판매된다고 한다.

실제로 인터넷 기사검색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8 ~ 9년 동안의 동자석과 관련한 도난 기사를 검색해보니 대략 20여건에 총 200여기 이상이 장물(贓物)로 거래되었다가 적발됐다.

제주동자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밀반출이 줄어들 거라는 낙관적인 추측은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육지부 박물관의 석조유물 전시공간이나 미술관, 개인집 정원 등에는 제주동자석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반출된 동자석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타 국가로도 밀거래 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기사 중에 국내 밀거래나 반출이 적발되는 경우 외에도 일본으로 밀반출(密搬出)하려다 적발된 사례라든지 일본으로부터 환수(還収)한 석상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또한 도난당하는 석물은 동자석뿐만 아니라 비석이나 거북좌대, 망주석 등과 같은 분묘의 여러 석물들도 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5.3. 제주동자석의 도외 반출 현황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제주동자석들이 육지부로 반출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기도 지역 박물관에 전시된 제주동자석>

또한 제주동자석의 분실과 도난에 관한 기사들도 끊이지 않고 계속 보도되고 있다. 제주동자석이 이처럼 밀반출과 도굴의 대상이 된 것은 1970년대 전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동자석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조각미(彫刻美)와 제주석(濟州石)에서 풍기는 미적 가치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제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희귀성 등의 요인이 도굴꾼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분묘의 석상들은 도굴꾼들에 의한 석상의 도굴이 이루어지고, 몇 단계의 거래 과정을 거쳐 박물관이나 고미술품점, 갤러리, 개인집 정원, 심지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물로 팔려나가고 있다.

제주에서는 분묘에 있는 것은 아무거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분묘에 함부로 가는 것까지 터부시하는 사상이 있다. 망자의 영역은 신성(神聖)시 되고, 그 영역의 산담 안에 것은 피장자의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기에 동자석의 도난과 분실에 대해 후손들은 기가 막히고 조상을 대할 면목이 없다면서 죄책감으로 살아간다.

제주의 분묘 중에서도 비교적 세월이 오래된 300여 년 전후의 분묘에서는 그야말로 동자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분명 석상이 세워졌던 흔적 [좌대나 구덩이] 이 있는데 동자석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실제로도 과거 70년대까지 여러 가지 문헌의 사진에 분명히 나와 있던 석상들이 그 분묘를 찾아가보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분실된 상태이다.

지난 2006년 8월에 제주동자석의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수집하고 경기도 지역으로 제주를 떠난 제주동자석 찾기에 나섰다. 2박 3일의 일정동안 경기도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두 곳에서 모두 224기의 제주동자석을 직접 목격하고 필름과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제주동자석들을 보는 순간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며, 그곳에 있는 제주동자석의 개체 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동자석들의 모양과 지물 등이 제주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성을 느낄 정도로 특이한 석상들이 많았다.

2007년 7월에는 서울 인사동 거리의 고미술품 전문점들을 일일이 드나들며 매물(売物)로 나와 있는 제주동자석 8기를 촬영하였다. 그 중 한 가게에서 대략 150년 안팎으로 보이고 지물도 아주 선명하게 칼을 든 동자석 1쌍을 4백만 원에 판매한다고 했다. 또 다른 동자석들은 계단과 출입구 쪽에 놓여 가게의 장식용과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또한 2007년 9월에 다시 3박4일 동안 경기도 지역 박물관 4곳을 다니며 210여기 동자석을 촬영하였다. 그곳에서 만난 제주동자석들은 제주에서 필드 조사과정에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석상들도 다수 볼 수 있었는데 가슴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 동자석, 옷놀이나 연날리기, 재기차기 짚은 놀이를 하고 있는 동자석, 북, 소고, 해금, 장구, 심지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슴에 새겨 놓은 석상들을 보면서 실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16세기 제주동자석이라는 광고 글을 내건 동자석인 경우는 그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초기의 제주동자석 타입이라는 점에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2009년 5월에는 서울 장안평 지역 고미술상가 등에서 10여기의 제주동자석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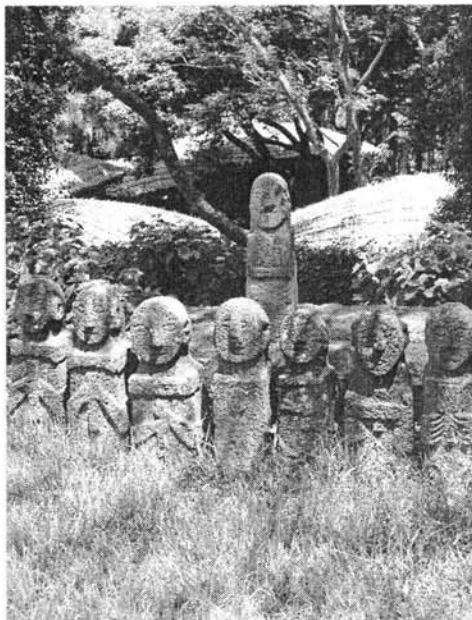
하지만 이렇게 반출된 동자석들도 만약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전시용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 모양이나 형태 등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찾아 볼 수 있지만, 개인집 정원이나 조경물로 깊숙한 곳에 자리해버린 동자석들은 다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5.4. 제주도내 분묘를 떠난 동자석

분묘를 이탈한 동자석들은 육지부로 반출된 경우도 많지만 제주도내 박물관, 공원, 기념지 등 여러 곳에도 적지 않은 숫자의 석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석상들의 유입 경로나 원래 세워졌던 지역, 연대 등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주동자석에 대한 조형적(造形的), 형태적(形態的), 지물 분석적(持物分析的) 학술 가치는 매우 높다.

도내에서 분묘를 이탈한 동자석이 세워져 있는 곳은 주로 관광지나 박물관, 공원, 식당의 정원 조경용, 민속품점이나 고미술점 등 다양한 시설들에서 동자석을 발견할 수 있다. 분포 또한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고 판매용으로 진열된 석상들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동자석의 유입경로나 출처, 구입가격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유입경로를 물으면 함구(緘口)하는 형편이다.

이 석상들은 정확한 연대추정(年代推定)이나 소재지 파악은 불가하지만 향후 제주동자석 연구에 기초적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석원에 전시된 동자석>

지난 몇 년 동안 도내의 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있는 석상들은 총 350여기를 촬영하였고, 조경용이나 판매용으로 장식된 석상 40여기 등, 제주도내에 있는 분묘이탈 동자석은 총 390여기를 촬영하였다.

이처럼 육지부로 반출되어 전시되고 있는 석상은 모두 400여기 이상 촬영을 하였고, 제주도내의 전시된 동자석도 390여기 이상 촬영을 하였으며, 그 외로 해외로 반출된 석상, 이미 깊숙한 곳으로 떠나버린 동자석까지 포함한다면 분묘를 떠나 반출된 동자석만 해도 1,000여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중한 제주동자석들의 수난을 최소한이라도 막을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중요 석상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하고 문화재(文化財)로 지정하

며, 제주동자석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VI. 제주동자석의 가치

제주동자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인간이 빚은 조각상들은 대부분 그 작품을 보며 인간의 우월함을 느끼게 하는 고도의 조각기술에 감탄하지만, 동자석을 바라보면 비록 인간이 빚은 조각이지만 거기에 끊임없이 더해 가는 자연의 조각 기술을 만나게 된다. 동자석의 온몸을 덮고 있는 ‘지의류(地衣類)’들의 화려한 변화와 자연적인 색상(色相)변화, 수많은 세월동안 비바람이 어루만지며 생기는 마모과정으로 아련하게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빚는 예술미(藝術美)의 극치(極値)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유연히 흐르는 오름 자락을 따라 마치 오름과 하나인 듯한 푸근한 산담 안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갈 훌륭한 조각품이 숨을 쉬고 있다. 그것이 제주동자석의 갖는 또 다른 기품이요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라 할 것이다.

제주동자석은 미술사(美術史)적으로나 생활신앙적(生活信仰的)으로 제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척박했던 섬 땅의 고달픈 삶과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예술미가 베여있는 소중한 석상들은 분명 제주의 귀중한 보배가 아닐 수 없다. 저마다 다른 천(千)의 얼굴을 하고 자연의 품안에서 망인과 후손들을 이어주는 가교(架橋)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동자석이 하루 빨리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재 지정만이 이제라도 동자석의 분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防禦膜)이요, 절도나 밀거래 같은 범죄가 적발될 시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는 행정당국도 서둘러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이상 도난과 밀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주동자석은 제주도민 모두의 자산이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될 것이다. 개인집의 정원을 지키는 헛된 조각품(彫刻品)이 아니라, 제주예술의 역사와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재로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제주의 오름과 한데 어울리며 자리한 분묘들 >

참고문헌

- 조운득 ; 「제주 석상에 관한 연구 - 묘소의 동자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1987
- 이진희 ; 「조선전기 능묘석물의 배치와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석인상을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1996
- 강창언 ; 「제주도의 동자석연구 - 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 임영애 ; 「개성 공민왕릉 석인상연구」 한국미술사연구소 2001
- 김영익 ;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5
- 양리가 ; 「제주도 동자석 고찰」 서울디자인포럼 1998
- 김우림 ; 「용인지역 분묘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용인대학교박물관 전통문화연구소 2001
- 염경화 ; 「제주도묘제 및 장례풍습 소고」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경주김씨 제주도 종친회 ;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 세보 제1~제3권」 1978
- 김찬흠 ;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 군위오씨 종친회 ; 「군위오씨 족보」 상·하권 보전출판 2005
- 제주문화원 ; 「역주 증보탐라지」 경신인쇄 2005
- 성산읍 신평리 ; 「넷가의 풍년마을」 경신인쇄 2006
- 김해김씨 신방계 종친회 ;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신방계 세보」 내내로출판 1999
- 김성은 ; 「제주도 돌문화와 조형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자석을 중심으로」 제주대산업대학원 2002
- 우종구 ;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디자인 연구 ; 제주 고유의 민속소재인 동자석을 중심으로」 제주대산업대학원 2003
- 고창석 ; 「조선조의 유형제도와 제주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 신영대 ; 「제주 문화속의 오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현용준 ;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국립민속박물관 ; 「경남지방 장승, 솟대 신앙 - 부 : 제주의 석상」 국립민속박물관 1997
- 김성호외 ; 「산지 소유와 묘지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김영아 ; 「안동지역의 조선시대 묘제 연구」 안동대학교대학원 2005
- 제주대학교박물관 ; 「석상과 석물」 제주대학교박물관 2007
- 김정옥 ; 「얼굴 Museum of Face」 박물관얼굴 200
- 김유정 ;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2003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2003).『제주도 지질여행』